외식업계 "여기서만 팔아요~"

시그니처메뉴 2030 저격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층
니즈 맞춘 음식개발 봇물
시그니처 메뉴로 입소문

젊은 고객층의 수요를 반영한 메뉴로 젊은 매니아층을 끌어들이는 외식업체들이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2030세대는 가장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인 만큼 외식업계에서도 중요한 고객층 중 하나다.

외식업체들이 2030세대의 입맛과 트랜드에 발 빠르게 맞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타겟층의 다양한 니즈에 걸 맞는 시그니처 메뉴를 내세워 입소문을 얻고 있는 곳들이 눈에 띈다.

최근 스페인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통 스페니쉬 펍으로 자리매김한 '클램'도 함께 주목 받고 있다. 얼마 전까지도 다소 낯설게 느껴졌던 스페인 요리들은 '감바스'와 같은 대표 메뉴들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클램은 그 중에서도 스페인에서 식사 전 술과 곁들여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소량의 음식을 뜻하는 '타파스'가 전문인 곳이다. 특히 다양한 타파스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모둠 타파스'는 맥주 한잔에 곁들일 수 있는 최고의 메뉴로 꼽히고 있다.

클램의 감바스▶

넴과 분짜. /SF이노베이션

최근 떠오르는 베트남 요리, '오바마가 사랑한 음식'으로 불리는 '분짜'를 현지의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분짜라붐'은 베트남 정통 식재료와 조리법을 베이스로 한국식 입맛에 맞춤형 음식인 '하노이 직화 분짜', '하노이 쌀국수', '남방풍 매운 쌀국수', 베트남식 튀김만두 '넴(짜조)' 등의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매일 매장에서 직접 뽑는 생면과 오랫동안 끓여낸 사골양지국수는 신선하고 구수한 맛을 자랑한다. 거기에 직화로 구워내 특유의 맛과 풍미를 그대로 살려낸 고기가 더해져 이곳은 베트남 분짜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 얻고 있다. 분짜는 숯불 고기, 생면, 각종 허브를 소스에 찍어먹는 베트남식 비빔 국수로 생라임을 짜 넣어 먹는 것이 특징이다.

'카페띠아모'는 유럽식 아이스크림인 '젤라또'의 대중화에 기여한 1세대 디저트 브랜드다. 디저트는 여성들에게 있어 항상 먹고 싶지만 다이어트로 인해 참아야만 하는 존재다. 하지만 띠아모의 젤라또는 체중관리에 민감한 여성들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 이는 천연 농축원료 사용과 무방부제, 무색소 원칙의 철저한 고수 덕분이다. 거기다 지방 및 당분 함량도 현저히 낮다.

김동현 창업디렉터는 "외식업계의 주요 타겟층이 2030이다 보니 그들의 트랜드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코리아센터닷컴, '260억 투자금 유치' 성공

내친김에 코스닥까지 노크

해외직구 배송대행 1위
이르면 하반기 IPO 추진

코리아센터닷컴이 26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고 내친김에 코스닥 시장까지 노크한다.

코리아센터닷컴은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샵'과 해외직구 배송대행 '몰테일', 팟캐스트 '팟빵' 등을 운영하고 있다.

코리아센터닷컴은 최근 수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대규모 외부 투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2000년 설립한 코리아센터닷컴은 전자상거래통합솔루션과 온오프라인 물류인프라,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커머스플랫폼 기업을 지향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6년 매출은 국내 부문만 약 770억원, 해외까지 포함하면 1200억원 가량을 거뒀다.

코리아센터닷컴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직구 배송대행 1위인 몰테일의 해외직구 마켓 '테일리스트', 캐시백 '몰리'는 2016년 대비 지난해 각각 105%, 14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 메이크샵은 모바일 커머스에 특화된 서비스를 출시해 페이스북과의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십 제휴 등으로 쇼핑몰 업계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유료결제 국내 1위, 일본 쇼핑몰 플랫폼 1위의 지위를 확실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빠르면 하반기 코스닥 상장도 노린다. 이를 위해 코리아센터닷컴은 지난해 NH투자증권을 대표주관사로, 신한금융투자를 공동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IPO)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쟁업체인 '카페24'가 오는 8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등 전자상거래 전문업체에 대해 시장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어 상장을 통해 제 2의 도약이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테슬라 요건 1호' 기업으로 상장 문턱을 넘은 카페24에 비해 시장가치는 코리아센터닷컴이 더 뛰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테슬라 요건이란 적자 등으로 상장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성장성 등을 우선적으로 판단해 상장 기회를 주는 특례상장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이름을 따 '테슬라요건'으로 불린다. 적자를 내다 지난해 흑자로 돌아선 카페24에 대한 시장가치는 현재 약 5000억원 정도로 알려져있다.

코리아센터닷컴 김기록 대표는 "투자기관으로부터 메이크샵과 몰테일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이미 구축돼 있는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 사업확장성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성공적인 투자 유치와 상장추진을 통해 글로벌 커머스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코리아센터닷컴은 1대주주인 김기록 대표가 50.21%의 지분을, 2대주주인 임성진 기술담당 이사가 31.27%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창업단신

▲투썸플레이스, 밸런타인데이 제품 60여종

투썸플레이스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사랑'을 표현한 '하트형 케이크' 등 시즌 제품 60여종을 선보인다. 이번 밸런타인데이 제품은 케이크와 마카롱, 초콜릿 세트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밸런타인데이 대표 케이크는 핑크색 겉면이 눈길을 끄는 '두근두근 러브시그널'이다.

▲커피빈, 디카페인 전매장 확대

커피빈이 카페인을 마시지 못하는 임산부 또는 카페인이 잘 맞지 않은 고객들을 위한 디카페인 음료를 모든 매장으로 확대한다. 커피빈은 원두가 들어가는 모든 음료에 디카페인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면 별도의 금액추가 없이 디카페인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배스킨라빈스, '사랑에 빠진 오버액션토끼' 케이크

배스킨라빈스가 밸런타인데이 시즌을 맞아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랑에 빠진 오버액션토끼'를 출시했다. '사랑에 빠진 오버액션토끼'는 인기 캐릭터 오버액션토끼의 행복한 표정을 담은 아이스크림 케이크이다. 크림 아이싱과 코코넛 컬로 오버액션토끼의 새하얀 털을 표현하는 동시에 더욱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초콜릿▲아몬드봉봉▲뉴욕치즈케이크 총 3가지 아이스크림으로 구성했다.

/박인웅 기자

현대약품 대표이사에 이상준 사장

'3세 경영' 본격 시동

현대약품이 3세 경영에 시동을 걸었다.

현대약품은 지난 5일 이상준 사장을 대표이사에 선임하면서 이상준 사장, 김영학 사장 체제로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신임 이상준 사장은 현대약품 창업주인 (故)이규석 회장의 손자이자 이한구 회장의 장남으로 동국대 독어독문학과와 미국 샌디에이고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2003년부터 경영 수업을 시작했다.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

지난 2012년에는 미래전략본부장을 맡았으며 2017년 11월에는 신규사업 및 R&D부문에서 신규사업 및 R&D부문 총괄 사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정연우 인턴기자 ywj964@

휴온스 '나이벡'과 협력… 치과사업 강화

치과용 의약품 공동판매계약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가 치과 분야 사업 강화에 나선다.

휴온스는 지난 1일 치과 연구전문기업 나이벡과 치과용 의약품의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휴온스는 앞으로 나이벡이 자체 개발한 치주염 치료제 '미노큐어(MinoCure)'와 치과용 컨디셔너 '크린플란트(Clinplant)'를 국내에서 공동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휴온스는 국내 치과용 국소마취제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치과용 '리도카인'과 함께, 나이벡의 '미노큐어'와 '크린플란트'를 유통해 치과 분야 의약품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박인웅 기자

지난 1일 진행된 공동판매계약 체결식에서 나이벡 정종평 대표(왼쪽)와 휴온스 엄기안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휴온스

블루에어 '1인용 공기청정기' 시장 본격 진출

신제품 '블루 퓨어 411' 선봬

스웨덴의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기업 블루에어가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선다.

6일 블루에어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블루 퓨어 411' 신제품을 발표한 뒤 향후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에서의 목표를 밝혔다.

블루에어가 내놓은 신제품 '블루 퓨어 411'은 15㎡(약 4.5평) 공간에 사용하기 적합한 소형 공기청정기다. 360도 공기흡입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시간 당 5회 공기 정화를 한다. 1인가구나 공간별로 여러 대의 공기청정기 사용을 고려하는 가정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루에어 조나스 홀스트 아시아 지역담당 이사가 6일 자사 신제품인 '블루 퓨전 411'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나스 홀스트((Jonas Holst) 블루에어 아시아 직역 담당 이사는 "기존의 큰 공기청정기 수요를 넘어 소비자들이 특정 공간에 적합한 기능, 크기, 편의성을 자랑하는 제품에 대한 니즈가 늘고 있다"며 "이번 신제품 론칭으로 좁은 공간에는 블루 퓨어 411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기존에 클래식 라인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좀 더 다양한 공간을 위해 블루 퓨어 411을 구매하는 등 공간에 따라 제품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블루 퓨어 411은 공기청정기 본연의 청정 능력은 향상시키고, 꼭 필요한 기능만 반영해 무게 자체도 가볍게 제작됐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등급으로 기본 속도로 사용 시 약 전구 한 개만큼의 전력을 소비한다.

한편 1996년에 창립한 블루에어는 현재 아시아, 유럽, 미주, 중동 지역을 포함한 60여개국 이상의국가에서 공기청정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정연우 인턴기자

"유방암치료제 롤론티스, 美 시판허가 신청"

한미약품, 올 4분기에 진행

한미약품이 개발한 지속형 호중구감소증 치료 바이오신약 '롤론티스'의 미국 시판허가 신청이 올해 4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약품의 롤론티스 개발 파트너사인 미국 스펙트럼는 롤론타스의 임상 3상인 ADVANCE Study에서 경쟁약물인 Peg-Filgrastim(상품명 뉴라스타) 대비 비열등성의 1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항암치료로 인해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한 초기 유방암 환자 406명을 대상으로 롤론티스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스펙트럼은 롤론티스의 두 번째 3상 임상연구인 RECOVER의 환자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한미약품 본사. /한미약품

리 슈워츠버그 테네시대학 헬스사이언스센터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롤론티스의 임상 2상에서 확인한 안정성과 유효성을 이번 ADVANCE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롤론티스의 시판허가시 골수억제성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추가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터전 스펙트럼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임상 3상 연구 결과는 스펙트럼 미래가치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며 "또한 3상 임상 RECOVER 환자등록을 이미 마침으로써 기존 계획대로 2018년 4분기 안에 시판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롤론티스Rolontis의 타깃 시장은 약 5조원으로 추정된다.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은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의 바이오신약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신약 중 상용화 가능성에 첫 발을 뗀 의미있는 신약"이라며 "롤론티스의 성공적 개발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웅 기자